

당신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선물합니다

기억보관소 프로젝트 '타자기 버스킹' 타라제이, 10월 양림동 등서 4회 진행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한 작가가 당신만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기록해 선물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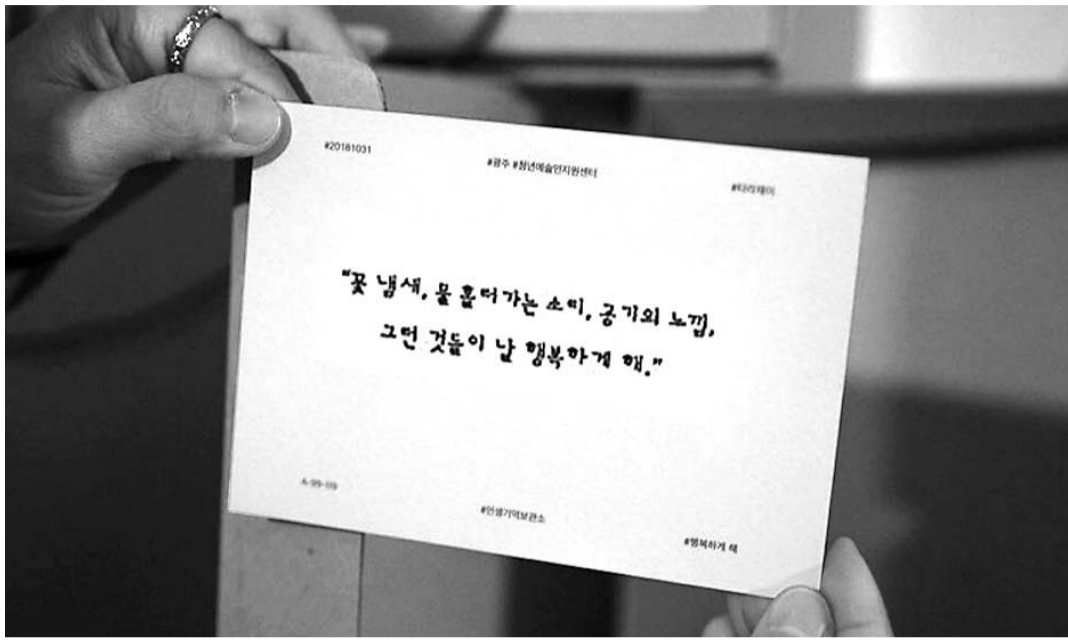
송재영

사람들의 기억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는 이가 있다. 일명 메모리피커 송재영(이하 필명 '타라제이'). 그는 길거리에서만 난 누군가의 이야기를 문장으로 기록해 선물한다.

작가 타라제이가 10월 '타자기 버스킹'을 통해 광주 곳곳에서 시민과 여행객을 만난다. 양림동 등 광주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타자기 버스킹'은 일명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다. 작가의 필명인 '타라'는 티벳 설화에 등장하는 '고통의 강을 함께 건너 주는 이'를 뜻한다.

이번 '타자기 버스킹'은 길에서 만난 시민과 차담을 나누고, 대화 중 한 문장을 타자기로 기록하고, 즉석에서 참여자의 기억에 영감을 얻은 새로운 문장을 지어 전달하는 방식이다.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한 타라제이의 기억보관소 프로젝트는 분실물 보관소가 모티브가 됐다. 잃어버린 소중한 기억을 찾아주고, 잊고 싶은 기억은 말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타자기 버스킹으로 이어진 것. 그동안 참여자들이 기억보관소 문을 두드렸다면 올해는 직접 작가가 만나기 위해 '버스킹'을 프로젝트에 접목했다.

타라제이는 "타자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 글자 한 글자 소중히 기록하기 위해서"라며 "각박한 현실



작가 타라제이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문장으로 기록하는 '타자기 버스킹'을 양림동 등 4곳에서 진행한다. 사진은 기억을 모티브로 한 짧은 글. <광주문화재단 제공>

때문에 지나간 기억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고 메모리피커가 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2019문화예술펀딩프로젝트 만세만세 만(萬)만(滿)계'에 참여해 진행됐다. 지난 7월 400만원을 목표로 두 달간 모금을 계획했고 총 165만원이 모금됐다. 비록 목표모금액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기부자들의 후원이 모인 결과기에 모금 마지막 날 네이버 오디오클럽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했고 얼마 후 기적이 일어났다.

방송을 들은 ㈜영무로컨 박현택 대표이사님은 금액인 235만원을 기부하며 모금 목표액이 달성된 것. 박현택 대표이사는 "지역에서 청년작가들이 얼마나 어렵게 예술 활동을 이어오는지 알고 있기에

청년작가들을 응원하고 싶었다"고 기부 이유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총 4회 진행되며 장소 및 일시는 ▲12일(오후 3-6시) 양림동 커뮤니티센터 소녀상 앞 ▲18일(오후 7-밤10시) 금남공원 ▲24일(오후 7-8시) ACC구름다리 ▲31일(오후 3-밤 9시) 광주문화공원 김넛고.

한편, 만만계는 14개 프로젝트 중 13개 프로젝트가 모두 모금에 성공했고 총 모금액은 온라인 1600만원, 오프라인은 4693만원이다. 현재 해피빈에서 국악그룹各色(각인각색) '국악창작뮤지컬 신초영전' (250만원 목표, 오는 31일까지 모금)이 진행 중이다. 해피빈 개별 모금함 통해 기부참여 또는 네이버에서 광주문화재단을 검색하면 모금 진행 중인 개별 모금함이 뜬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첼로·바이올린·플루트로 듣는 오페라 아리아

'양상블 사랑과 나눔' 정기 연주회 12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소프라노 김선희

첼리스트 윤소희

'양상블 사랑과 나눔'이 12일 오후 3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 38회 정기연주회 '가족을 위한 멜로디-첼로, 오페라'를 연다.

이날 공연은 자주 접했던 오페라 아리아들을 첼로, 바이올린,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 가사가 없는 연주곡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기획됐다. 연주에 앞서 각 오페라의 배경과 내용에 대한 해설이 함께하며, 오페라 공연 장면, 관련 사진 등이 담긴 영상도 함께 상영된다.

이날은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 '타이스의 명상곡', 제닝의 '리콜레토 환상곡',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중 '개신 행진곡', 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비제의 '카르멘 환상곡' 등을 공연한다. 보케리니의 '첼로 소나타 제6번', 피아졸라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사계' 중 '겨울'과 '봄' 등도 연주하며, 푸치니의 오페라 '라 보엠' 중 '내가 길을

걸을 때면', 레온카발로의 '아침의 노래'를 소프라노 김선희가 부르는 무대도 마련된다.

조성경 교수가 총괄감독을, 송선미가 해설을 담당하며 김관후(바이올린), 배혜경(플루트), 진채리(첼로) 등 16명의 연주자가 출연한다. 입장료 1000원. /유연재 기자 yjyou@

살롱음악회 '80년대 추억의 가요' 선보이다

광주시향 '가을연가' 공연 11일 문예회관 소극장



김은영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오는 11일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GSO 살롱음악회 '가을연가'를 개최한다.

살롱음악회는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접목한 곡들을 선보이는 음악회로, 이번 공연은 80년대 추억의 가요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은 록 밴드 '퀸'의 대표곡들을 모아 편곡한 '퀸 메들리'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연주하고, 포크음악 그룹 '해바라기'의 '행복을 주는 사람', 가수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빗물같이요' 등을 중창단의 무대로 선보인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

가', 민해경의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 양희은의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등 80년대 히트곡들을 뮤지컬 배우의 목소리로 듣는 자리도 마련된다. 광주시향 상임부지휘자 김영언이 지휘봉을 잡으며, 소프라노 박선영(순천시립합창단)과 박성경(나주시립합창단), 메조소프라노 신재희(나주시립합창단)로 구성된 중창팀 'La Diva'와 뮤지컬배우 전한영과 김은영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전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

치유·상생·회복의 메시지 '춤·극 심청'

전남도립국악단 공연 11~12일 남도소리 울림터

전남도립국악단이 남도소리울림터 공연장에서 정기공연 '춤·극 심청'을 공연한다. 11일 오후 7시 30분, 12일 오후 5시.

이번 공연은 전통무용과 창극을 결합한 무대로, 고전 '심청'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심청의 비극, 죽음보다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치유와 상생, 회복의 메시지를 담았다.

남경장사들 손에 이끌려 여정을 떠난 심청은 인당수로 몸을 던지며 출생, 성장,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들을 회상한다. 현대의 심작가는 심청의 죽음을 막지 못했던 심봉사와 같은 심정으로 죽은 딸을 꿈속에서 찾아 나서고, 심청의 모습에 그의 꿈속에서 오버랩 된다. 심작가는 꿈속에서 죽은 아내 곽씨부인을 만나 생에 못 다한 말을 전한다.

이날은 전통무용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무용 기법을 적용해 표현력을 높인 무대를 선보인다. 대본을 맡은 이주영 작가는 "전통무용의 메소드적인 표현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전통춤 기법에서 벗어나 컨템포리 속성이 높은 무대로 기획됐다"고 말했다.

또 무용부뿐 아니라 장악부, 기악부, 사물놀이부 등 전남도립국악단 4개 부서가 모두 무대에 올라 안무를 선보이는 점, 무대미술과 영상, 공간 배치 등으로 한 무대에서 과거의 심청과 현대의 심작가를 번갈아 보여주는 점 등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공연 브로셔 등에 삽입된 QR코드를 활용해 판소리 '심청' 원문과 원곡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총감독은 유장영 전남도립국악단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연출·안무는 정길만 국립무용단 훈연장이 담당했다. 조정수 서울메트로폴리탄필하모닉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작곡·작장했다.

관람료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흥 출신 신상엽 시인 첫 시집 '아낌없이 나누는 동행' 펴내

"바다는 나에게 진솔한 당신의 소리로 그리움에 물든 바다를, 외로움과 쓸쓸함에 울먹인 지난 날의 아픔들을, 저미는 가슴을 움켜쥐고 고요에 사무친 별밤 해는 바다의 이야기들을 시로 전해 주라 했다"

'바다 시인'으로 알려진 고흥 출신 신상엽 시인이 첫 시집 '아낌없이 나누는 동행'을 펴냈다. 모두 80여 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은 자연에 대한 관심과 자아에 대한 성찰 등이 투영돼 있다.

"오늘 하루 근심과 걱정으로 / 두려워하기보다는 / 웃음으로 가득 찬 날이 / 되길 기도 할게요 /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해서 / 아낌없이 행복하기를 / 진심으로 바랄게요"

위의 표제시 '아낌없이 나누는 동행'은 인간관계의 바탕인 따스한 정과 배려를 담고 있다. 평이



한 시어와 간결한 리듬이 주제 의식과 맞물려 잔잔한 느낌을 준다. 발문을 쓴 문인호 문학평론가는 "시인들의 자유로운 사고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넘어 벽을 열고 나와 하늘에 빛나는 태양을 보듯, 서로를

이해는 사회의 구원에 앞장서야 할 의무 또한, 시인들의 묵언을, 신 시인의 작품 속에 내재된 의미로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평한다.

한편 신 시인은 2017년 배두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협과 전남문협, 고흥문협에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